

# 건설업 체감경기 올들어 최고치

계절적 요인 공사 늘어... 호재 없어 향후 전망은 비관적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수주액 지속 감소,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따라 향후 건설경기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4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CBSI는 전월 59.0보다 11.6포인트 상승한 70.6을 기록했다.

CBSI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그 반

대다. 이는 지난해 12월(71.6)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고 전월 대비 상승 폭은 2010년 9월 이후 가장 컸다.

대형건설사의 CBSI는 91.7로 치솟았고 50대를 맴돌던 중견사의 CBSI도 61.5로 회복됐다. 특히 4개월 연속으로 40대에 머물렀던 중소건설사의 체감경기도 56.4를 기록하는 등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처럼 CBSI가 오른 것은 호사가 끝나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공사물량이 늘어난데다 정부의 9·10 부동산대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향후 건설경기 전망은 특별한 개선요인이 없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긴 힘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의 지난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건설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7.3% 줄었고 건설수주액도 29.9%나 급감했다. 이처럼 경기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이 부진하고 경기선행 성격을 띠는 건설수주마저 감소한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CBSI 지수 자체는 아직 기준선인 100에 훨씬 못 미쳐 여전히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저조한 상태"라며 "지난달 CBSI가 큰 폭으로 상승한데다 이달에는 건설경기 개선요인이 많지 않아 향후 전망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 인사

◇강원도 ▼과장급 승진 △김길수(자치정책과)△정진권(예산담당관실)△어재영(농식품유통과)△이상명(산림소득과)△박병진(지역도시과)△박재명(건축주택과)△박완재(토지자원과) ▼담당급 승진 △김영관(글로벌사업단)△이형우(감사관실)△전제일(농어촌정책과)△정해섭(투자유치과)△조근구(토지자원과)△최덕순(농어촌정책과)△박영일(감사관실)△최정석(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황환호(토지자원과)△전두식(산림개발연구원) ▼6급 승진 △김남정(예산담당관실)△박재호(에너지자원과)△이성용(기획관실)△임종선(총무과)△유준구(농식품유통과)△장상규(농어촌정책과)△최준철(친환경농업과)△김태진(도로관리사업소강릉지소)△최근배(토지자원과) ▼7급 승진 △진효수(대변인실)△김찬규(감자원)△김익철(산림개발연구원)△조상원(환경정책과)

/ 오늘 전국체육대회 도선수단 결단식 /

# 강원체육의 힘 대구서 펼쳐 보인다



“강원체육의 힘 대구에서 펼쳐 보이겠습니다.”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강원선수단이 필승의 의지를 다진다.

도선수단은 5일 오후 4시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선수·지도자를 비롯 도내 기관·단체장 대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승을 다짐하는 선수단 결단식을 갖고 장도에 오른다.

오는 11일 대구에서 개막, 17일까지 일주일간 열리는 전국체전에 강원도는 1,100명의 선수와 230명의 임원 등 모두 1,34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42개 정식종목에 출전하는 도선수단은 17개 시·도 가운데 종합 9위를 목표로 내걸었다.

지난해 3년 연속 종합 8위를 거두며 강원체육의 저력을 알린 도

제93회 대회 오는 11일 개막

종합 9위 목표 1,340명 파견

는 올해 강원도보다 순위에서 뒤졌던 대구가 개최지로 단체종목 등에서 유리한 시드를 배정받아 한 계단 하락한 9위를 예상했다.

9위를 거둬들 경우 도는 2006년 전국체전에서 종합 7위에 오른 이후 올해까지 7년 연속 종합 9위 이상, 한자릿 수를 달성해 강한 강원체육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전국에 과시하게 된다.

앞서 대량특정이 걸려있는 단체종목 대진추첨에서 메달을 예상했던 일부 종목 및 팀들이 초반부터 강팀들과 맞붙어 점수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체육회는 부족한 부분을 개인 및 체급종목 선전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준우승을 차지한 강원육상은

현재 도정팀과 춘천농공고 상시여고 소속 대표선수들이 중국 쿤밍에서 전지훈련을 마무리하는 등 대표팀 모두 대회 당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전국체전 통산 20회 종합우승을 노리는 강원역도도 전지훈련을 끝내고 현재 신축 강원체고 역도전용훈련장에서 컨디션 조절에 전념하고 있다.

나머지 종목들도 마지막까지 전지훈련을 통해 기량을 끌어올리거나 각 연습장에서 마지막 훈련에 몰입, 대구가 약속의 땅이 될 것을 자신하고 있다.

김덕래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강원도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을 믿는다”며 “각 종목 선수 모두가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격려와 응원을 보내 반드시 목표성취 달성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 ◇정동기 대한건설협회 도회

장은 5일 오후 4시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

## ● 경계인 동정 ●



◇정동기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5일 오후 4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한다.